



300-1-082. 신문조서(鄭在達 외4명 大正8년 制令 제7호 위반)

■ 鄭在達·李載馥·李鳳洙·申伯雨·元友觀 등의 1919년 制令7號 위반사건 기록 수록

- 鄭在達은 1922년 11월 조선공산당대회에 참가하였으며, 韓明錫·李東輝 등과 같이 모스크바 3회 국제공산당대회에 출석한 바 있고, 고려공산당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조서에는 李鳳洙·申伯雨·李載馥 등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사건은 送致되어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사가 진행되었고, 예심이 청구되어 공판이 진행되었다.
- 李載馥(李成)은 공산주의대표회의 소집을 기획하였으며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신문, 잡지의 발행 및 편집에 종사하였던 자로, 韓明錫·李東輝·鄭在達 등과 함께 공산주의의 주동인물이다. 조선공산당대회 발기인으로 대회를 소집하여 노동문제, 농민문제, 청년문제, 여성문제, 조직문제 등을 논의, 처리 했다. 李秉輝는 敎師生活을 하였으며, 京城 중앙기독교청년회관의 1919년 소요사건시 露領 知多공산대학에 입학하고, 졸업 후인 1922년에는 同地 고려노동신문사 주필로 활약하다가 淸津共進會를 기회로 入鮮하여 중앙기독교청년회관 등에서 선동선전 책을 강구하고 당 기관을 설치하는 등 要人·要路를 정밀 내사하였다.
- 李鳳洙는 東亞日報 記者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潛入한 공산당 간부 정재달과 여러 차례 회합, 밀의하여 鮮內 기관을 설치하고, 沿海州 조선인 공산당원준비위원회 파견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하였다. 1919년 制令7號 위반사건이다.
- 元友觀은 東京 早稻田大學 中退 후 귀경하여 공산주의를 연구하고 李鳳洙·申伯雨·金在鳳·鄭在達 등과 조선공산당 활동을 하였으며, 상기자들과 밀회하는 등의 활동하였다.
- 상기자들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사 후 기소되어 공판진행 후 종결되었다. 1925년 9월 12일에 선고판결이 있었던 바, 죄명은 1919년 制令 第7號 위반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며, 李載馥은 상소권 포기로 형이 확정되었다.